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AMCF 선교 협력 위원회

M · S · O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주님 안에서 즐거웠던 임원수련회, 정기총회

2009 세계기독교인 대표들의 정책회의(Seoul Council)를 위한 준비회의

2008 AMCF 유럽기독교인 지도자모임

Accts MMI 2008 Retreat에 다녀와서

중국 내륙지방 한 곳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방문

2008년도 MSO 월별 주요사역계획

케냐, 파나마, 중앙아시아... 에서 온 기도제목

통권 14호

2008 NO. 2

2008 MSO 임원수련회



새해 정초 1. 11(금)~12(토)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에 위치한 광림수도원에서 MSO 임직원 및 운영협력위원(부부동반), 유관기관 대표 등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MSO 임직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2008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하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시작하는 첫날 눈이 많이 내려 걱정스럽게 출발하였으나 무사히 잘 도착하였고 점점 더 많이 내리는 눈에도 불구하고 몇몇 임원들은 눈 속에서 어렵게 참석하여 주

님 안에서 더욱 반갑고 기쁜 만남을 주셨다.

MSO 수련회는 해마다 눈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 MSO와 함께하심의 증표인 양 3년 내내 눈 속에서 집회가 시작되었다.

수련회 짧은 기간 중에 3번에 걸쳐 하나님께 경배의 시간을 가졌는데 개회예배는 도착과 동시에 전성동 목사의 사회와 김사묵 장로의 기도, 손창문 목사의 설교 후 국가와 군과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새벽에는 여성국 주관으로 이계심 권사의 사회, 안현미 목사의 기도, 장문석 권사의 성경봉독, 허성화 목사의 설교와 여성임원들의 특송으로 예배를 드렸고, 폐회예배는 강덕동 장로의 사회로 임원재 안수집사의 기도, 김홍태 목사의 설교로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시간이었다.

'08 수련회기간 중 MSO 설립 후 처음으로 총회(1. 11일 15:30~17:00 어간)가 소집되었다. MSO 위원장 이준 장로의 사회로 2007 사역결과, 2008 사역계획 보고(김진욱 국제실장 보고), 2007 재정결산 보고 및 2008 예산판단 보고(배운규 재정부장 보고), 정관내용 중 일부를 수정, 심의, 의결한 후에 이어서 정관에 따라 MSO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 김사묵 장로(최연장자)의 사회로 현 이준 장로를 위원장으로 재 추대하여 전원일치로 선출하였고 이준 위원장은 취임인사 후 사역보고서에서 추천된 임원들의 명단대로 임명할 것을 제안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중요한 안건들이 토의되었다.

저녁에는 기히 MSO의 당면한 과제로 제시된 내용들인 MSO 일꾼양성에 관하여(이갑진 장로), 민간유관기관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손창문 목사), MSO 영어캠프사역 방향(송고성 장로), MEO Program 발전 방향(박백만 집사), 지역 팀의 활성화 방안(강한규 장로) 등이 발표된 후 추가 의견개진 및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결론은 유보한 채 문제만 제기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토의는 차후 P&P 시에 심도 있게 하기로 의견이 모여졌다.

이어서 AMCF Manuel 상의 모든 나라의 군에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Inductive Bible Study, Conversational Prayer를 MSO 모든 임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앞으로 적용하기위해 Interaction Team(팀장 김덕수 장로)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고 실제로 10개조로 나누어서 실습케 함으로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12일(토)에는 두 분의 초빙강사를 초청하여 교훈과 세계선교의 안목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강사로서 MSO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승남 회장(조은시스템 창업자)은 자랑스러운 군 생활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기업육성, 인재양성, 구제, 믿음생활의 강연은 큰 감동을 주었고, KWMA 사무총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강승삼 목사는 "21세기 세계 선교는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영상물을 통해서 세계선교의 근황과 한국선교의 Vision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모든 임원들이 세계선교의 현주소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금번 수련회에서 우리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참석자 모두가 새로운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매우 유익한 모임이 되었다. 또한 정기총회를 겸한 수련회가 되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사역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009 세계기독교인 대표들의 정책회의(Seoul Council)를 위한 준비회의

- MSO 사무총장 김영덕 장로 -

2009 세계기독교인들의 정책회의(Seoul Council)를 위한 준비회의가 2008. 2. 21(목)~23(토)어간 서울에서 세계 군선교 기관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AMCF는 10년 주기로 세계기독교인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 후 5년이 되는 해에 AMCF 회장단(회장과 14명의 부회장)과 주 지원기관(ACCTS, Accts MMI, MSO)들의 임원들이 모여서 지난 5년간을 평가하면서 향후 5년간의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회의(Quinquennial Council)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도 세계기독교인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어 134개국 3,2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집회가 은혜가운데 개최되었고, 5년 후의 정책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2009년도에 AMCF 정책회의(Seoul Council)를 개최하게 되어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모임을 2008. 2. 21~23에 갖게 된 것이다.

이번 준비모임에는 AMCF 회장인 이필섭 장로와 미국 ACCTS에서 Cal DunLap (Executive Director), Jim Greshel(Conference Assistant), 영국 Accts MMI에서 Jos McCabe(Chief Executive), Mike Paterson(Secretary), 그리고 MSO 위원장인 이준 장로 외 여러분이 참가했다.

회의 첫날인 22일(금)에는 AMCF 회장과 주 지원기관인 ACCTS, Accts MMI, MSO의 대표들만 모여서 경건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 온종일 (9:00~17:00)세계 군선교의 당면한 여러 문제들, 4개 기관의 입장 표명, 상호의사소통문제, 그리고 2009년도에 토의될 정책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MSO 위원장은 “한국 군선교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의 군선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한국 군선교를 소개했다.

22일(금)새벽에는 고벨로 조찬기도회(성경공부)에 참석하여 한국에비역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한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23일(토)에는 09:00~17:00 여간에 오형재 장로(SC 준비위원장) 사회로 SC 2009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SC 2009 회의 시 지난 5년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제시된 제목들에 대한 보고서(논

문, 보고서)를 검토하며, VP들은 자기 지역 내 사역의 내용들을 설명케 하고, 3개 기관들은 각국 MCF 설립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역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참가한 VP들로 하여금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여러 내용들을 토의 후 17:00경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의는 만남을 통한 친교에 큰 유익(Relationship)이 있었고 대면을 통한 여러 의제 토의는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금번 기회를 통해서 MSO 사역활동과 한국군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ACCTS, Accts MMI, MSO 3개 기관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기간 중 자진해서 민박으로 수고 해주신 여러분들(이필섭 장로, 김무웅 장로, 윤영수 장로, 김진옥 안수집사), 공항 영접과 식사제공(이명복 장로, 김승남 회장, 윤여일 장로), 특별헌금 등 많은 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 주셨다. 감사를 드린다.



2008 AMCF 유럽기독교인 지도자모임

- AMCF 회장 이필섭 장로 -



AMCF회장 유럽기독교인 Meeting (European Meeting AEMCM) 참가

2008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독일의 Lubbecke에 위치한 독일주둔 영국군 선교관인 Church House에서 2008 AMCF European Military Christian Leaders' Meeting이 개최됨에 따라 본인은 유럽의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예수 안에 하나 되기 위한 교류를 가지면서 유럽지역의 MCF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기간 중 계획된 중남유럽 담당 AMCF 부회장 이취임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유럽에 있는 두명의 AMCF 부회장들인 Mark Fillingham(영국)과 Torbjorn Bostrom (스웨덴)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13개국 (알바니아, 불가리아, 독일, 몰도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한국)에서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주제는 "Roots, Shoots, Fruits"로서 주로 믿음의 선진들 중 아브라함, 갈렘, 사무엘, 다니엘, 에스겔 및 바울의 활동을 조명해 보고, 그들의 훌륭한 '믿음의 행위'를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들에 대한 강의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국별 국가보고와 기도제목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한 기도를 했다.

2월 17일(주일)에는 성찬식을 겸한 예배와 함께, AMCF회장 주관으로, 이임하는 중남유럽 담당 부회장 Mark Fillingham(영국)으로 부터 신임 부회장 Brian Parker로의 이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신임 부회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7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유럽 대륙에는 아이슬란드로부터 아르메니아까지 50개국이 소속되어 있고, 그중 22개국에는 MCF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이번 모임에 유럽대륙 자체에서는 11개국만이 참석하였다. 다양한 순서와 함께 기간 중 성찬식은 영국의 해군 군목과 루마니아의 정교회 사제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참석한 정교회 측의 MCF회장은 국가보고 시 비자문제로 참석치 못한 기독교 측의 MCF활동까지를 포함하여 발표해 주는 등,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갈 3:28)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기간 중 각국 보고나 Accts MMI, SASRA, AMCF, MSO, ACCTS USA 등 여러 기관들의 발표가 있었다. 모두가 상이한 지역에서 상이한 기능과 방법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한 지체로써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Brian Parker (예비역 해군 중령)가 헌신하게 될 중남유럽지역은 AMCF 1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29개국이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MCF 미설립국이 17개국이나 된다.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휴면상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MCF활동의 장애물을 개관해 보면 대체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종파의 방해, 아직도 남아 있는 독재정권의 압박, 종교분쟁 가능성을 염려하는 정부의 억압,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정서,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나태함, 열정적인 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오히려 동구권의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MCF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번 여행은 항공기, 기차, 버스 등을 포함, 편도 23시간의 여행이었다. 기차 여행 시는 기내 방송이 독일어로 방송되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정확한 시간에 기차가 운행되므로 Hannover 도착 시각에만 관심을 가졌더니 무난히 하노바 역에서 내릴 수 있었다.

독일의 호텔이나 영국군의 숙소에서는 밤이면 추워서 고생을 했지만 그들의 근본적이고 투철한 환경보호대책의 뿌리로부터 오는 근검절약정신은 배워야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역할을 수 천년동안 수행해 왔던 유럽 여러나라들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열정적인 일꾼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해 지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된 여행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보낸다.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국 Salisbury Salum College에서 개최되는 Accts MMI 회의에 참석하였다. Salisbury시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150Km에 위치하고 있는 1200년 이상 된 조그만 도시이며, Salisbury College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집회 활동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 한국의 수련원과 유사한 시설이었다.

금번 회의는 Accts MMI에서 1년에 1번씩 개최하는 수련회 겸 세계 군선교를 위한 팀 리더(Team Leader)들의 지난 1년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Accts MMI 임원 및 후원인원 60여명과 미국 ACCTS 대표 3명, 한국 MSO 대표 1명(본인)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남아시아 VP인 스리랑카 예비역 장군 Srilal부부, 파키스탄 MCF대표 Innocent 대령(예)이 초청되어 간증을 하였다.

회의는 2일에 걸쳐서 경건의 시간, 각 지역별 선교활동 보고, ACCTS 및 MSO의 금년 활동계획 보고, 기도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일(2월 10일)에는 마지막으로 예배 및 성찬식을 끝으로 모든 회의가 끝났다. 특히, 2월 9일 저녁에는 각 지역별 기도시간을 가진 후에 모두 모여서 책상 위에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참석자들이 세계 각국의 MCF 활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나라 위에 촛불을 올리고 기도를 하였다.

영국 Accts MMI가 설립된 지 금년이 27년째이며, 지금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세계 군선교를 위하여 회장 McCabe씨를 중심으로 모두가 높은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MSO에서 앞으로 영국 Accts MMI 또는 미국 ACCTS와 협력하여 일을 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ACCTS 및 Accts MMI는 MSO

보다 세계 군선교 활동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MCF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MSO에서는 지역별 책임자들이 ACCTS 및 Accts MMI 지역 책임자들과 Counterpart가 되어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둘째,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Team Leader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또한 Accts MMI와 같이 해당 지역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제공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지역 회의 시 참석 등)
셋째, 금번 회의 시 모든 임원 및 회원들이 세계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매우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었다. Accts MMI 사무실에는 기도담당 임원 1명이 상근근무를 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기도 계획을 작성하여 전달한다.

앞으로 우리 MSO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기도계획이 작성되고, 모든 임원들이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Accts MMI 회장, 임원 및 회원들이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여 세계 군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이 영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이었다.

이번 Accts MMI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동역자가 영국과 미국에도 있음을 알고 더욱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세계 군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금번 Accts MMI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MSO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ccts MMI 회의를 다녀와서

- MSO 인력개발팀장 윤영수 장로 -



중국 내륙지방 한 곳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 MSO CI 팀장 오형재 장로 -



본인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중국 내륙지방 S省의 한 도시를 다녀왔다. 사도 행전 2장의 '땅 끝'은 어디일까? 아무래도 중국, 이슬람권 국가들, 인도, 그리고 최후는 북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의 주변국이며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에 어떻게 MCF를 설립할 것인가가 MSO에 주어진 최대과제라 할 수 있다.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까지 회귀 (Back to Jerusalem)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군인의 경우는 예비역이라 하더라도 외국 여행을 엄격히 통제받고 있다. 이번에 필자가 만난 50대 후반의 예비역 대령은, 외국여행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1년 전 私席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 본인은 그에게 2004년 AMCF 세계대회 화보를 선물로 주었다. 그는 종교란 '한낱 무식한 저소득인들의 전용물' 일 뿐이라는 교육만 받아왔는데 화보를 보니 심지어는 장군들까지도 예배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무척 놀라웠다고 했다.

그는 현역에서 2006년 예편하였다. 그러나 전역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의 MSO의 MEO(군 복음화 현장 참관) 프로그램 참석은 무산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2008년에는 초청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으로 再會次 만나러 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자 발급이 또 걸림돌이었다. 중국인은 해외여행을 하려면 크게 두개의 통로로 비자를 발급 받는다. 하나는 관광 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초청장에 의한 것인데 후자는 한국영사관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할 수도 있어 자신이 없다고 했다. 한편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그 단체는 방문기간 중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땅 끝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端的인 예이다. 성급하게 결론을 말 하면 이렇다. 초청비자를 받는 쪽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청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만일 비자 청구자가 직장에서 예비역을 위한 복지 분야에 근무한다 하자. 그러면 한국의 복지 관련 기관장의 이름으로 초청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신규민원인 경우 처음에는 난색을 표할지 모르나 끈기 있게 신뢰를 쌓아 가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일본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거의 완벽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사관생도나 공무원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일은 이른바 大和魂(일본 고유의 민족정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꺼려하고 있다. 하물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라.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에는 "인간은 신(God)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公理(너무 명백하여 증명 불가한 법칙)로 받아드린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한 숭고하고 지순한 정신적 터였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이 건설되었을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 13억의 거대한 인구 집단의 나라. 그 나라가 복음화 된다면 전 세계에 미칠 엄청난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매우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젠가를 해 내실 것이다.

본인은 이번 여행에서 아주 적은 가능성을 시험하고 돌아왔다. 한 명의 예비역 대령이 빵 속의 작은 누룩이 되어 전체의 빵을 부풀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면면히 그리고 도도히 이어져 나가기를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여행을 마치고

- MSO 교육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



지난 2월 11일 저녁 6시 50분 캄보디아 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통상 여름에 들어가던 일정을 이번에는 연초에 캄보디아 형제들에 대한 제자훈련과 미얀마 사역을 위한 정탐여행을 목적으로 별도의 선교일정을 잡았다. 현지시간 밤 10시40분 도착하여 20분 내외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 11시 반이 넘어서야 이삿짐, 박병진 선교사 부부의 공항 미중을 받았다. 곧 바로 단골인 아시아호텔로 가 여장을 풀었다. 프놈펜 시내에 자리 잡은 실비가격의 이급(캄보디아 기준)호텔은 우리나라 장급 여관에도 못 미치는 숙박 시설이지만, 그래도 사취를 할 수 있고, 에어컨이 나오는 데다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매우 염가의 호텔로서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3번째 매년 한두 번씩 가다 보니 프놈펜과 식당 종업원들이 모두 구면이다. 2월 12일이 선교사 내외, 서울교회 파송 박진 이 선교사와 조식을 같이 하고, 낮 시간은 최근 캄보디아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한 유기홍 감독을 만나 그곳 축구현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캄보디아 축구협회 회장 소카 중장은 현지 헌병 중 사령관으로서 우리의 활동에도 협력적 관계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와의 만남은 현대 호랑이 축구단 방문과 맞추어 일정 후반부로 잡았다.

12일 저녁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에는 영어 캠프를 했던 우동부대(여단) 2명, 기감사령부 1명, 11여단 2명, 911 특전여단 2명과 북쪽 비탐방 지역에서 가정 사역을 하는 2명의 장교 등 총 9명이 참가하였다. 숙식과 교육은 이삿짐 선교사 책임 선교센터에서 실시하였다. 가족적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안성 맞춤형 환경이었다. 개회예배에서 마태복음 4:18-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 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전하고 격려하였다. 첫날 저녁에는 각 지역별 사역보고 시간을 갖게 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으나 믿음의 불씨가 잘 자라는 곳도 있었고, 그 동안 판기관의 지도 아래 활발하게 활동하던 모임이 무슨 이유로 해체된 상태에 있는 곳도 있었다. 모이기를 원하나 지도자가 없는 곳도 있었다. 성경이 부족하고, 고정된 모임의 처소가 없거나, 있기는 하나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었다.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물들을 적고, 서로를 위

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다음날 아침 예배 후, 오전 오후 6시간 동안 이미 배포한 교재를 중심으로 크리스찬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강의하고, 귀납적 성경공부와 대화식 기도를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실습 중 팀 리더는 이미 경험이 있는 두 장교가 맡아서 하였다. 리더들의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 중에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이었다. 모두들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흡수성이 매우 높았다. 저녁에는 '누옹 씸' 장군이 와서 특강을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수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수로의 표지로 AMCF 벤틀리를 달아 주었다. 각 부대별로 크레더 성경과 화용품 등 약간의 선물과 함께 이 선교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를 준비하여 함께 주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형제임을 확인하고 따뜻한 포옹을 하며 각자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다. 대부분은 서민의 길에 뛰어들어 오도바이로 떠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6시간을 가야 한다. 이번의 제자훈련은 다음의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첫 번째의 의미는 MSO가 지난 3년 첫 실시한 영어캠프 위주에서 열매로 맺힌 소수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처음의 제자훈련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 지도자를 목표로 한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황적교류가 거의 전무한 이들 간에 기독교인 형제로서의 친교와 유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각 부대마다 주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물을 갖고서 떠난 것은 매우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본다. 세 번째로 귀납적 성경공부와 대화식 기도를 진행하는 기초를 배우고 갔다는 점이다.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수준들이나 성령께서 이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양육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폐회예배 시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심을 보는 너무나 진지하고 은혜로운 기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이 제자 훈련의 지속성 유지와 MSO의 전문교관요원의 양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장기적 과제로는 그들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스스로 제자양육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2월14일에는 911특전 여단장 Peakday 장군을 만나 친교를 나누고 그의 관심사인 축구 팀 창단의 협조 사항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삿짐을 선교사가 주선하여 파준 심정 상태를 둘러 보고 부대가 준공식 마무리를 하고 있는 병원(우리의 의무실 수준) 상태를 둘러 보았다. 건물 꺾이기만 군에서 지어 주고 속은 부대장이 알아서 채우는 방법이다. 의료약품과 기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년 여름 캠프 전에 필요한 것 일부를 채워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저녁에는 이곳 OCC의 특수 선교사역을 위해 와 있는 전 선린병원 의료선교 팀 책임자였던 김현태 과장을 불러 식사를 함께 하며 격려하고, 앞으로 현지에서의 협력사역을 논의하였다.

2월 15일 09시 30분 방콕항공으로 방콕 경유 양곤을 향하였다. 미얀마에 도착하기까지 현지 무관을 제외 하고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떠났다. 보안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교여행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것이다. 그분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떠난 것이다. 오후 2시 양곤 공항에 도착하여 무관이 잡아 둔 호텔로 향했다. 우리가 지나가는 양곤 시가지는 매우 전원적인 도시였다. 내 속에 싸인 서구식 이층 집들은 내가 생각했던 미얀마는 아니었다. 더구나 오텐 전 승려들과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와 진압이 있었던 것을 뉴스로 보고 온 곳이라 더욱 그랬다. 무관의 말로는 치안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몇 번의 시도 끝에 우리의 접촉점인 현지인 C 목사님을 만났다. 한국에서 본 후 2년 만의 반가운 헤어졌다. 몸에 이상이와 한쪽 다리의 걸음이 불편하였다. 우리가 온 목적을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의 방문계획을 잡았다.

2월 16일부터 그가 경영하는 신학교를 시작으로 다섯 곳의 가정교회를 둘러 보았다. 모든 교회들이 양곤 외곽의 농촌지역에 위치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전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과 적게는 30여명, 많게는 80여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보석보다도 귀하게 보였다. 특히 여자 독신 목사님이 사역하는 한 교회는 슬럼 빈민가의 어린이 사역으로 정부도 포기한 지역이었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공

부시킬 수 있기를 원했다. 교사와 교실이 필요했다. 도유의 손길을 아타게 기다리는 그들을 보며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길러 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일정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만나기로 한 두 명의 2007년 MEO 참가자를 만났다. 대장금 식당에서 한국 음식으로 대접하며 우리의 사역을 논의 하였다. 너무나 반가워 했다. 그러나 모임의 주선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C 목사님이 주선하여 금년 여름에 사람을 모아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 일을 위해 이 선교사께서 5월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곳에서의 제자훈련을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하였다. C 목사님은 일년에 두 번 정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아무런 계획이나 사전 약속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 간 미얀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게 해 주셨다. 미얀마에서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체류 중 C 목사님 내외분, 두 아들 등 그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이 보여 준 친절과 후의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한다. 특히 목사님 박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한 오찬과 저녁식은 어느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청찬이었다.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프놈펜으로 향하였다.

2월 18일 프놈펜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서 울산 호랑이 축구단을 방콕에서 만나 같이 들어 왔다. 캄보디아 축구협회와의 친선의 일환으로 그들 국가 대표 팀과 연습경기를 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기회에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사역을 위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다음날 아침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와 만나 일정을 협의하고, 2월 20일 아침에 캄보디아 축구협회장 소카 헌병 사령관을 만났다. 두 번째의 만남이라 더욱 반가웠다. 캄보디아 축구부흥을 위한 그의 열정은 대단하였다. 그가 가진 재정적인 지원과 권인들이 우리의 선교사역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저녁에 우리 팀과의 경기를 관람하고 관계자들과의 친교를 한 후 심야 한국 행 아시아나에 몸을 실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선교여행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었으나 그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 할렐루야!

LA군사랑선교회 이사장 부인 일행 MSO 방문



2. 28(목) 11:00
LA군사랑선교회 이사장 부인(장덕실 권사), 딸(장혜영), 사위와 이신모 장로가 MSO를 방문하였다. LA군사랑선교회는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성도 중 군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국 군선교와 세계 군선교에 직 간접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신모 장로(LA군사랑선교회 총무)는 MSO의 LA 협조관으로 동역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영어캠프에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몽골 MCF 총무 MSO 방문



2. 26(화) 11:00~13:00 몽골MCF 총무(Ret) Bayarbileg와 장 신 대 신 학생 Euljibat(통역, 친구)가 MSO를 방문하여 몽골 MCF 사역활동 중 사관생도/초급장교 성경공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과 미국

CCCMM의 도움으로 한 군부대에 컴퓨터교실 설치, 운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군중앙교회 담임목사 초청 MSO 소개



국군중앙교회 담임목사(강병재 목사)가 새로 부임함으로서 MSO는 3. 6(목) 11:00~14:00에 MSO의 현황과 사역활동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세계 군선교(MSO)에 있어서 국군중앙교회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설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임원들과 함께 김두옥 장로가 제공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권안도 방위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방산관계 협의 차 인도와 싱가포르 방문



권안도 집사(MSO국제 부위원장)는 2. 14~22 어간 인도 방산 전시회 및 싱가포르 에어쇼(Air Show)에 참가하여 바쁜 와중에 MCF 회원들을 찾아 오찬을 함께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르키나파소 서혜경 선교사 부부 MSO 방문

멀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기독교도는 15% 정도이고 모슬렘이 35% 나머지는 토속종교) 선교사인 서혜경 선교사 부부가 2. 28. 09:00 MSO를 방문,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려주었다.



"2007 영어캠프는 보보 부대장이 최대한 협력해 주었고 오기환 장로(미국 워싱턴 거주 영어캠프팀장)의 수고가 많았으며 이곳 BFMCF에서도 영어캠프 팀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가브리엘 목사님이 성경책을 1박스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말씀 받아쓰기와 컴퓨터 타자 연습도 성경구절, 태권도 구호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였고, 군 가족, 어린이들이 미션을 열심히 배웠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어서 헤어질 때는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다 울었고 지휘관들 포함, 참석자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



서혜경 선교사는 평신도로서 부르키나파소에서 11년간 사역하면서 155여개의 교회를 신축하였으며 작년 여름에는 아들(20세)을 비행기 사고로 잃은 슬픔을 겪은 바 있다.

MSO에서는 2008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부르키나파소 영어캠프를 위해 컴퓨터 13대, 재봉틀 10대 구입비100만원, 영어캠프 사역경비일부(\$3000)와 후속초치에 따른 제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 마하나임 선교센터 군선교 사역 팀 지원금 송금



MSO에서는 캄보디아 선교사(이재울 목사)의 요청에 의거 군선교를 위한 사역팀(3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007. 11월부터 매월 \$700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영어캠프 실시비용의 일부와 집회 후 결산한 군인들의 선물용으로 요청한 십자가 목걸이(MEAK 제공), 배너(제자훈련용) 1점도 긴급 배송(3. 12)했다.

AMCF Newsletter 발간비 지원



AMCF에서는 분기 1회 세계 각국의 사역활동을 영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Newsletter를 ACCTS(미국)를 통해서 발간하고 있다. MSO에서는 발간비의 일부인 매년 \$5,000을 후원하고 있다. 금년 분은 AMCF 회장 미국 방문(3. 8 출국)편에 전달하였다.

몰도바 MCF 성경보급 지원



몰도바 군인들에게 배포할 위장 표지 신약성경(루마니아어) 5,000부 발간에 따른 후원요청 건에 대하여 MSO에서는 \$2,000을 지원(2008. 1. 28) 하였으며 2. 2(토) 몰도바 MCF 회장 Major(Ret) Eduard Rosca가 후원해준 MSO의 배려와 기도에 대한 감사 서신을 보내왔다.

러시아 문서 및 우크라이나 선교비 지원



구 공산권에 속한 중앙아시아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기독교인들에게 러시아 MCF가 발간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는 비용으로 년 \$500, 우크라이나 선교비 \$975를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편에 전달(3. 13)했다.

KT 기증용 PC(중고 노트북) 수령



1. 29(화) KT (한국통신, 남중수 사장)에서 MSO 세계 각국 MCF 활동지원용 (영어 캠프 시 컴퓨터 교육용, MCF 사무실용 등)으로 중고 노트북 PC 50대를 기증해주었다. 감사를 드린다.

Ohana Foundation 어린이 영어교재 Video Tape 수령



2. 5(화) MSO 영어캠프 시 어린이 영어교실, 영어교재 Video Tape를 Ohana Foundation 서울지사 (박은교 팀장)에서 기증해주었다.

호커스와 로터스의 모험(Hocus & Lotus Story Tape), 동물나라 세 친구 Tape 등이다.

긴 급 뉴스

서아프리카 부회장 공군소장 Ishaku Komo 에게서 온 긴급뉴스(3. 23)

4개국 MCF 새롭게 설립되다.

아프리카지역인 기니비사우, 감비아, 카뎀베르데, 레소토 등 4개국에 MCF가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보고해왔다 (다음호에 상세하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MSO 위원장(이준 장로) 동정

- 1. 18(금) 12:00~1:00
KBS 별관 KBS 신우회 대상 간증 설교
- 1. 23(수) 19:30
대구 삼덕교회(담임 김태범 목사) 여전도회 연합 헌신예배 간증설교
- 1. 28(월) 14:30~15:50
여전도회관 전국여전도회연합회(재경지역) 미래지도자 세미나 간증설교
- 1. 29(화) 16:30~17:30
여전도회관 전국여전도회연합회(지방회원) 미래지도자 세미나 간증설교
- 3. 6(목) 18:00~20:30
육사교회 육사 제 46기 졸업감사 및 군선교사 파송예배 친교 시 기도



AMCF 회장 이필섭 장로 동정

- 2. 12(화) 12:00~14:00
백석대교회(이기훈 담임목사)
캄보디아 (11여단) 영어캠프 사역 안내 및 참여요청위해 방문
- 3. 6(목) 18:00~20:30
육사교회 대예배실 육사 제46기 졸업 감사 및 군 선교사 파송예배 축하
- 3. 8(토)~4. 7(월)
ACCTS Meeting, FCMM Meeting참석, 미주한인교회방문

2008년도 MSO 월별 주요사역계획

월별	주요사역	일정	장소	대상	비고
1월	사무식	2(수)	양화진	MSO 임원	선교100주년기념교회 선교관
	임원수련회	11~12	광림수도원	MSO임원(부부) / 유관기관 대표	경기도 광주 오포면
	의료선교지원 요청	15일 한	사무국	선린병원/누가선교회	캄보디아 EC때 의료선교
	라오스 방문	23~26	라오스	이재을 목사	
	1/4 Newsletter 발간	1월 중	사무국	홍보섭외팀	2007. 4/4분기 실시사항 및 연초 행사
2월	Accis MMI 수련회 참가	9~10	영국 런던 Salisbury	윤영수 장로	자비참가 신청
	미얀마 방문	12~15	미얀마	이갑진 장로, 이재을 목사	
	유럽기독교인 Meeting	15~18	독일	AMCF회장	중남유럽VP 교체
	캄보디아 방문	16~20	캄보디아	이갑진 장로	EC 협력차
	2009 SC 예비 Meeting	21~23	국군중앙교회	ACCTS, AccisMMI, MSO, AMCF 회장	
	중양아시아 집회 참가	2월 중	키르기스스탄	김영덕 장로, 허성화 목사	비슈케크
	중국 방문	1. 29~2. 9	서안지역	오형재 장로	선교지 방문, MEO참가자 협의
3월	ACCTS회의	10~13	덴버	AMCF회장(부부), MSO대표	2008 전반기 Meeting
	미주한인교회 방문	15~30	LA, 시카고	AMCF회장	EC실시 한인교회/선교기관
	AMCF Newsletter 발간지원	3월 중	ACCTS	ACCTS 지원	연간 US\$5,000
	CI 학생선발 및 개강	*	사무국	CI팀장(오형재 장로)	학생선발 및 논문발송
	FCMM 참가	3.31~4.2	덴버	AMCF회장(부부)	
4월	2008 MEO Program 참석국(자) 확정, 초청	4월 중	사무국	MEO팀 및 MEO 참가국가	초청장, VISA발급, 시설협조 등
	2008 영어캠프 대상국 확정, 협력기관 방문	*	*	EC팀 및 EC 대상국가	실시 및 협력기관 방문협조
	미국 Mc Kean (예)소장 가족 일행 한국방문 / 안내	4~17	*	POC 김영덕사무총장	세브란스 의전/병원 창설자 후손 HCJB Global 선교사
	2/4 Newsletter 발간	4월 중	*	홍보섭외팀	1/4 중 주요실시사항
	MEO 진행준비	5월 중	사무국	MEO팀	MEO진행을 위한 제반준비 완료
5월	2008 EC계획 및 세부소요판단	*	*	EC팀	실시/협력기관 확정, 예산판단, 협조
	중동지역 방문	*	요르단	AMCF회장	
6월	MEO Program 실시	16~22	영산수련원	사무국, MEO팀	태평양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 10~12개 국가
	6.25 구국성회 참가	19~21	오산리 금식기도원	전 MSO 임직원	KMCF주관
7월	양골라 EC	7월 중	루방고	LA영락교회	Sara Sparrow 협력
	부르키나파소 EC(2)	*	보보, Kaya	위성전지구촌교회 외	오기환 장로
	RMH 인터액션 참가협조	7.26~8.10	미 서부지역 덴버	KMCF 추천 2명	참가준비를 위한 협조
	동아시아 인터액션 지원	7.28~8. 3	영산수련원, 광림우스호스텔	동아시아지역 MCF대표	10~11개국 38명
	3/4 Newsletter 발간	7월 중	사무국	홍보섭외팀	2/4 중 주요 실시사항
8월	캄보디아 11여단 EC	8월 초	부대내	미정	외 협력기관
	캄보디아 기갑사령부 EC	*	*	LA군사량선교회	이신모 장로
	캄보디아 911특전부대 EC	8월 중	*	LA영락교회	*
	중미지역 EC	*	4개국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교회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남미지역 EC	*	2개국	뉴욕/캐나다 한인교회	페루, 콜롬비아
	라오스 영어캠프	미정	*	LA지역교회	*
9월	아프리카대회 참가, 지원	9~13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지역 국가	Sapari Park Hotel
	남미지역대회 참가, 지원	9.25~10.1	페루 리마	남미지역 국가	대회: 9. 25~28 / 인터액션: 9. 29~10. 1
	미주한인교회 방문	9월 중	미 동부지역	AMCF 회장	EC실시 한인교회/선교기관
	ACCTS회의 참가	*	미 동부지역	MSO 사무총장(부부)	후반기 회의
	해군순항단 지원	*	해사	순항단, 기항지MCF	9~12월 간 순항
	세계 기도의 날	20(토)	국군중앙교회	MSO 임직원	AMCF 및 세계 각국을 위한 기도
	러시아 MCF창립 10주년 기념 및 수련원 현장식 참가	26~28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MSO 대표 (KVMCF 대표)	러시아 MCF 및 강태원 선교사 초청
10월	캄보디아 Udong부대 EC	10월 중	프놈펜 부대내	달라스 빛나리교회	선린병원 등 협력기관
	동남아시아 지역대회 참가, 지원	10.22~25	인도네시아 발리	동남아 지역 국가	대회지원 및 참가
	인터액션 WSS 참가	10.19~11.2	미 동부	MSO 대표	15일간 / White Sulfor Spring
	4/4 Newsletter 발간	10월 중	사무국	홍보섭외팀	3/4 중 주요 실시사항
11월	세계 군선교 사역보고	11월 말 주	국군중앙교회	MSO 후원자/기관, 국군중앙교회 성도	유관기관 대표, 주일오후예배
	MSO Brochure 수정/발간	11월 중	사무국	홍보섭외팀	
	주요 후원기관 초청 사역보고	*	육군회관	주요 후원자/기관	사역보고대회 불참기관 중
12월	연말 업무분석 및 2009 사역계획	12월 중	사무국	2008~2009	
	2009 총회 준비	*	*	*	
	연말 총무예배	26(금)	*	MSO/KMCF 회원	조찬기도회 및 송년예배, 친교실에서 조찬 및 친교



케냐로부터 온 기도제목

Mwaniki(AMCF 동아프리카 부회장)의 보고 (1/16)

케냐에서의 소요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고통스럽고 또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나면 영적인 기반과 사회적 잠재력이 자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보다 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Tim & Mary Mwangi(군목)의 보고 (1/24)

절망 중에서 힘없이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Kikuyu인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30일에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후에 그의 어머니의 1년간 농사지은 곡식을 저장한 창고와 또 하나의 건물이 불타고 소 8마리와 염소 20마리가 도난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그곳 사람들과 다른 부족에 속하지만 42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 KADDU당 소속으로 그 지방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Cyrus Jirongo 씨가 그의 리무진을 버려두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면서 그들이 행한 일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설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은 Kikuyu 부인과 그와 함께 추방당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그곳 농부들이 낚아치고 그 부인의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돕고, 자기들의 곡식과 가축을 가지고 그 부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분열된 케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향적 지도자가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경제적, 법적, 정치적 불평등과 선거과정에 야기된 인종간의 증오를 해결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Geoff Muturi(MCF협조관)의 보고(1/25)

군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 달 이상 대기상태에 있으며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는 폭력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군인들도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회와 군목 프로그램이 그 바쁜 군대 스케줄 가운데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과 반대파 지도자가 악수를 하고 서로 대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케냐의 크리스천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케냐 나이로비는 2008. 9. 9~13 최초로 범아프리카 대회개회 예정지임**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파나마를 위한 기도제목 Reifsnyder(2/5)

이 편지는 중미 부회장 Joaquin Maldonado에게서 온 것으로, 파나마 MCF에 큰 환난이 올 징조가 보입니다.

최근 바티칸에서는 군목을 카톨릭 성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요원 (가족 및 고용자 포함)은 카톨릭 교리를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MCF인들은 이제 감옥, 학교, 병원 등지를 방문 할 수 없게 되고 카톨릭 군목만이 방문 가능케 된다고 합니다. 파나마 MCF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아시아로부터 온 기도제목

Lei Hsue Ming(AMCF 동아시아 부회장)(1/23)

ACCTS로부터의 소식에 의하면 중아시아어 어떤 나라로부터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MCF 지도자가 지난 10월 대만대회에 참석한 후 끊임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 올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군중앙교회 4층 MSO (AMCF 선교협력위원회)
 ☎ 02-795-6225, 797-6763 / 748-4091
 팩스 02-797-6764
 Email: mso2004@paran.com
 http://mso.or.kr